KÓKKOS

2020 DEC
VOL. 225
12

김선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우가 졸업한다 . 두 다리와 손가락 사용도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4 년간 평균 학점 A-(3.76) 의 성적을 일궈냈다 . ' 그래 할 수 있다 ' 의 집념으로 이겨낸 열정이…. [관련기사 2 면]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못 한다'를 '그래 할 수 있다'로

"나의 약함을 아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준 하나님께 영광"

중증장애인 김선웅 (컴소 4) 학우 영예의 졸업

▲ 김선웅 학우

김선웅 (컴소 4) 학우가 졸업한다. 그의 졸업이 감동을 주는 것은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전동휠체어에서 4 년의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기 때문이다. 4 년간 평균 학점은 A-(3.76). '그래 할 수 있다' 집념으로 이겨낸 열정이 다른 비 장애학우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졸업 작품으로 'Voice Recognition in PC' 를 제작했다. 음성을 이용 PC 프로그램과 등록용 홈페이지, 유튜브까지 가능하다. 코딩 연구와 오류 해결 등을 혼자하려다보니 스트레스가 컸지만 멘토 고준영 선배의 도움으로 완성 시켰다. 지도교수인 정해덕 교수님의 '애 많이 썼다' 는 격려가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주었다.

김선웅 학우는 신장 180cm, 몸무게 85kg 의 건장한 체구. 그러나 진행성 선천적 장애가 있다. 유아기부터 약해지더니 초등학교 4 학년 때 두 다리는 기능을 잃었고 손가락 사용까지 힘든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단 1 분만이라도 내 두 다리로 서 보았으면 … 하는 생각을 수 없이 하며 살았다. 그의 오늘이 있게 한 사람은 " 덩치만 컸지 연약한 내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준 우리 엄마 " 이다. 선웅 학우는 어머니 속을 볼 수 있다면 색은 석탄처럼 검정색일 것이고 다 낡고 닳아서 너덜너덜 해져 있을 거라고 했다. " 엄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는 신체가 부자유스러워 '못 한다' 를 '그래 할 수 있다' 의 마인드로 삼고 반복하며 노력하였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돕고 전공과 맞는 국가기관에 취업해 자립기반을 세우길 원한다.

그는 "KBU 와 함께여서 고맙고 감사하다 " 고 말했다. 일반 학우들과는 정반대의 이유다. 학교가 작아 이동거리가 짧고, 언덕도 없으니 평탄해서 좋다는 것이다. 입학 첫날부터 ' 이건 내 학교다 ' 며 기뻐했다. 2 학년 때 4.2 학점으로 교내장학에 선정된 순간은 아직도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난감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고한다. 특히 엘리베이터. 복음관과 갈멜관의 엘리베이터가 시도 때도 없이 서는 바람에 목숨 걸고 타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3 학년 2 학기 때 새 것으로 교체돼 너무 기뻤다. 삼일교회, 광염교회를 비롯 헌금해 준 분들은 자신과 같은 작은 자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잘 모를 거라며 감사해 했다. 그리고 컴소학과 교수님들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들, 도우미 친구들과 동료의 도움도 오래 간직할 것이다.

간혹 친구들과 달리며 축구하는 꿈을 꾼다. 깨고 나면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다. 솔직히 그럴 때 멍해진다. 꿈이 깨지 않기를 바라지만 씁쓸하다. 그러나 현실을 수긍하며 나를 다시 세우곤 한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고민하고 삶의 목표점을 선택해 여기까지 왔다. 부족하지만 항상 의식이 열려져 전도의 도구로 쓰이길 희망한다. 다가올 새날도 한 걸음씩 전진해 갈 것이다.

미니설교

김정원 교수(성서학과)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 17:1-2)

창세기 16 장 16 절은 아브람의 나이 86 세 때 하갈을 통해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 창세기 17 장은 13 년 세월이 지난 아브람 나이 99 세 "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으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본문에는 약속 (언약) 의 단어가 12 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한 자손의 약속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여 아브라함은 17 절 "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24 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도 매일 드리는 기도 중 하나는 지구촌을 혼란에 빠트린 COVID19 에 관한 것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총장과 유학생과의 간담회

총장 "한국 친구들과 고국을 위한 복음화운동 단체를 조직하라"

▲ 캄보디이 출신 시짠니 (성서 4) 학우가 발언하고 있다 .

2020 년도 총장과 유학생 (회장 유홍예 , 영보 4) 간담회가 11 월 30 일 오전 밀알관 2 층 회의실에서 국제교류팀 (팀장 신지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간담회는 유학생 개개인들이 학교에서 느낀 점과 향후 진로 , 비전 등을 전하고 강우정 총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

중국에서 유학 온 유주용 (성서 3) 학우는 초창기 언어의 부족으로 유학 포기까지 고려했었다 . 그러나 교수님과 주변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 . 그동안 성서대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KBU 구성원으로서 자긍심도 생겼다 .

캄보디아 유학생 쌀리 (영보 4) 학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왔지만 쉽지 않았는데 기숙사 새벽예배와 채플시간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 . 그는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돌아가서 복음전도자로 활약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

베트남에서 입국한 르엉티튀장 (성서 3) 학우는 현지에서 통역 업무로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진 건 교만이었다 .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고 특별히 교수님들의 격려와 사랑에서 위대함을 느꼈다 .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을 배웠다 . 기독교인이 부족한 베트남에 베트남성서대학 설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3 가지를 당부하였다 . 첫째 고국에 복음을 전해야할 복음전도자의 훈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소명을 잊지 말 것 , 둘째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학우들과 고국 복음화를 후원할 복음단체를 조직할 것 , 셋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 것 (Never, Never give up) 등을 당부하였다 .

현재 우리대학교에 유학중인 유학생은 22 명이다 . 중국 14, 캄보디아 3, 베트남 2, 몽골 , 가봉 , 우즈베키스탄 각 1 명씩이다 .

"KBU 는 더 없이 귀한 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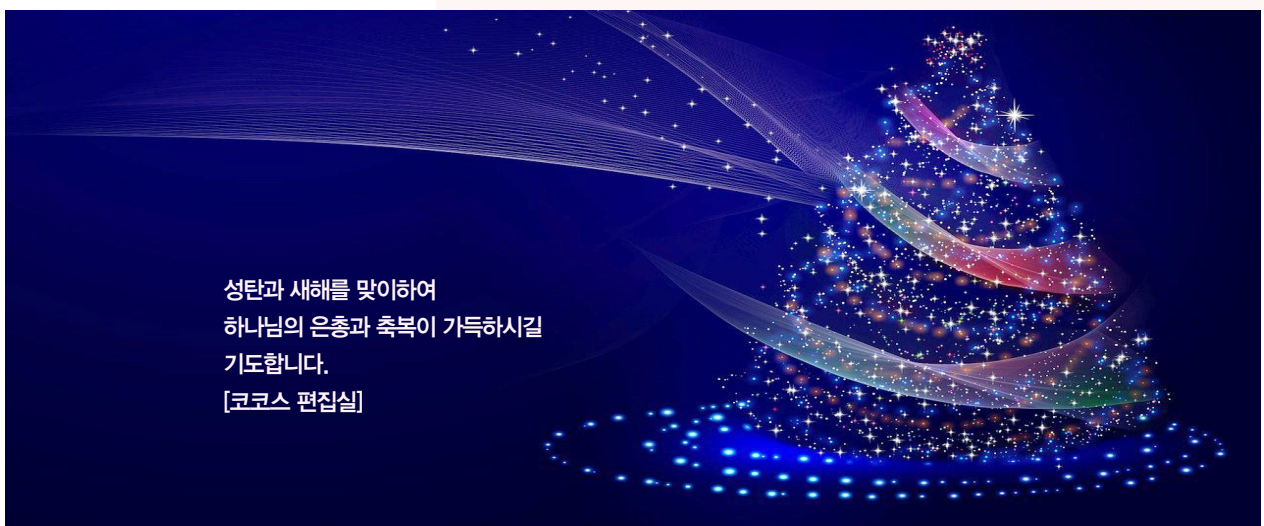
장애학생간담회 , 학습 욕구 잘 섬겨줘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형미 교수) 가 주최한 2020 학년도 장애학생간담회 'Just 10 Minutes' 가 11 월 9 일 채플 후 천마홀에서 진행되었다 .

장애학우들은 "KBU 는 더없이 귀한 대학이었다 " 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 학우들은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까 두려웠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배려와 적절한 조치 덕분에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

장애우들은 학교가 시험 1–2 주 전에 장애 학우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준 점 , 과제물 제출 기한 연장이 필요한 학우는 없는지 체크해 준 점 , 청각 장애를 가진 학우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에 자막을 삽입해 준 점 등 학우들의 학습 전반을 잘 보살피며 학습 욕구를 잘 섬겨줬다고 말하였다 .

11 월 현재 우리대학 장애인 학우는 19 명이다 . 이날 참석한 장애 학우는 8 명이며 교육동행인은 2 명이다 .



2020-2 학기
4 학년 주관예배

아름다운 말씀 ,
진솔한 신앙고백의 잔치

▲ 이경찬 학우 (성서 4)

2021 년 2 월 졸업예정인 성서학과 4 학년 학우들의 설교와 타 학과 4 학년 학우들이 간증으로 엮어가는 '4 학년 주관예배 ' 가 11 월 16 일부터 27 일까지 2 주간 로고스홀에서 진행됐다 .

첫날 김예진 학우 (성서 4) 가 ' 사명자의 자세 ' 제목으로 시작한 설교는 , 마지막 날인 27 일 이경찬 학우 (성서 4) 의 ' 습관적인 염려 ' 말씀으로 막을 내렸다 . 간증은 첫날 사복학과 허진선 학우의 은혜 가득한 체험기와 마지막 날 최하은 학우 (사복) 의 간증을 통해 듣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

26 일 유성준 학우가 ' 시험을 당할 때 ' 제목으로 말씀하였다 .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으로 평안하지 못하다 .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본질을 바라보고 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 유 학우는 형이 질병으로 6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 형을 치유해 달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형은 건강을 되찾았다 . 요셉과 모세가 주의 신실함을 믿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주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했다 .

첫날 , 허진선 (사복) 학우가 간증을 하였다 . 중고교시절 집안 문제와 주변의 따돌림까지 겹치면서 암울함은 극에 달했다 .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도 했었는데 노을 속 십자가 빛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았다 . 그러자 돕는 손길들이 다가 왔다 . 미술 큐레이터가 꿈이었지만 뜻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서대에 왔다 . 이곳에서 축복과 감사 은혜를 경험했고 교수님과 선후배 동기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하다 . 나를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 올리며 학교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

4 학년 주관예배는 1, 2 학기 마지막 2 주간 (13, 14 주) 에 진행되며 학우들이 사회 , 기도 , 간증 , 설교의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한다 .

2 학기 4 학년 주관예배의 간증 및 설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간증 / 설교).

16(월) ▲허진선 (사복) / ▲김예진 '사명자의 자세' (수 3:1~6)
17(화) ▲강제현 (간호) / ▲박은지 '답이 없는 길' (출 17:1~7)
18(수) ▲신정은 (간호) / ▲김혜원 '진정 우리가 빠져들어야 하는 것' (빌 3:7~4)
19(목) ▲문예린 (영보) / ▲권산 '여호와의 인도하심' (출 13:17~22)
20(금) ▲이종석 (사복) / ▲양주향 '형통' (시 1 편)
23(월) ▲이재은 (간호) / ▲윤자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있는 삶' (딤전 4:6~16)
24(화) ▲치냉쌀리 (영보) / ▲장한나 '주인과 종 : 순종의 관계 ' (마 25:14~30)
25(수) ▲윤경민 (사복) / ▲남유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일 3:18~24)
26(목) ▲홍효천 (간호) / ▲유성준 '시험을 당할 때' (약 1:2~8)
27(금) ▲최하은 (사복) / ▲이경찬 '습관적인 염려' (마 6:25~34)

2020-2 학기 성경졸업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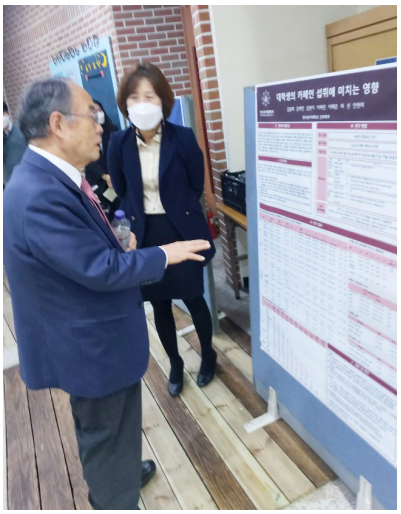
응시율 93%, 합격률 40.6%

2020 년도 2 학기 성경졸업고사가 11 월 7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172 명이 신청하고 160 명이 응시 (93.0%) 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65 명이 합격 (40.6%) 하였다 . 2019-2 학기 합격률 72.7% 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결과이다 . 졸업을 앞둔 4 학년 졸업반 응시자 16 명 중에서는 9 명이 합격하였다 . 학년별로는 4 학년 50.0% 로 제일 높았고 1 학년 , 3 학년 , 2 학년 순이었다 .

간호학과 제 9 회 간호학술제

“석사급 논문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최우수논문 ,
김영은 김채린 배가람 송유진 여성찬
이영현 학우 팀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
대학생활적응 ,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 강우정 총장에게 고미숙 (오른쪽) 학과장이 연구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간호학과가 주최하는 ' 제 9 회 간호학술제 ' 가 18 일 오후 3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학술제는 3 학년 47 명의 학우들이 팀을 이뤄 5 편의 학술논문과 3 편의 연구포스터 , 2 학년은 보건포스터로 간호학과만의 풍성한 학술잔치가 펼쳐졌다 .

간호학술제에서 영예의 최우수논문은 김영은 학우 팀 (6 명) 이 연구한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 대학생활적응 ,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이 차지하였다 . 논문 부분에서 우수상은 박세진 학우 팀 (7 명)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이었고 연구포스터 부문은 박서희 학우 팀 (5 명) 의 '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 수면의 질 , 소외감 ,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가 각각 선정됐다 .

이밖에 2 학년 보건교육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 마스크 , 알고 착용하니 ?!' 에게 돌아갔으며 ' 치매 ,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 등 4 개 팀이 우수포스터에 선정됐다 .

김조자 교수는 총평에서 " 연구논문이 일반적인 간호대 3 년생을 훌쩍 뛰어넘는 기량이다 . 통계분석조사와 체계 및 인용 , 결론 도출까지가 석사급 논문이라 해도 과언 아니라 " 며 격려했다 . 보완할 점은 " 서두부터 연구목적의 명확성이 드러나면 좋겠다 . 유사 변수측정에 사고의 유연성 및 측정도구와 자기효능 세분화 등에서 통합적 시각이면 더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고 총평을 해 주었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 비대면 환경에서도 논문 완성을 위해 흘린 노고와 열정을 보여준 학우들이 자랑스럽다 . 간호학과의 논문 발표가 계속 이어져 성서대 간호학과를 상징하는 전통이 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학술제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논문명 / 지도교수 / 연구자)

◇최우수상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 대학생활적응 ,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최은희 교수 / ▲김영은 ▲김채린 ▲배가람 ▲송유진 ▲여성찬 ▲ 이영현

◇우수상 (논문)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장인순 교수 / ▲박세진 ▲박성령 ▲서샛별 ▲이하은 B ▲조새온 ▲최은서

◇우수상 (연구포스터) :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 수면의 질 , 소외감 ,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김정숙 교수 / ▲박서희 ▲김아름 ▲윤예원 ▲장원영 ▲한수지

학술적 글쓰기 경진대회

최우수상 김소의 (성서 2) 학우

기초교육원 (원장 이한영) 이 주최한 2020 학년도 학술적 글쓰기 경진대회에서 김소의 (성서 2) 학우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 우수상은 조민영 (성서 1), 김은혜 (사복 1), 장려상은 허승 (사복 1), 이윤지 , 이가현 (간호 1) 학우에게 돌아갔다 .

김소의 학우는 '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 의 주제에서 행복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적절한 조화 속에 발전되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

심사에 참여한 김남국 교수는 " 좋은 리포트란 주제 선정의 적절성과 내용의 독창성이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김태규 교수 (기초교육원) 는 " 학술적 글쓰기의 목적은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분석과 비판적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 이라고 말하였다 .

시상식은 13 일 채플 후 강우정 총장이 수여하였다 .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 만), 우수상 (7 만), 장려상 (5 만) 마일리지가 지급되었다 . 경진대회에는 102 명의 학우가 참여하였다 . 전년도 35 명에 비해 약 3 배 증가하였다 .

총동문회
모교는 가장 건강한 신학계 대학
성서인만의 우수한 DNA 와 자긍심 있다

▲ 이성화 동문회장이 동문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국성서대 총동문회 (회장 이성화) 가 11 월 12 일 부천 서문교회에서 열렸다. 1 부 예배 , 인사 및 친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성화 (28 회 , 서문교회 담임) 회장은 설교를 겸한 인사를 통해 " 우리 모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신학대학임을 자부한다. 매일 채플과 노방전도 및 성경읽기 전통은 우리의 자긍심이다. 성서인의 긍지로 학교 발전에 협력과 사랑을 더해 나가자 " 고 말하였다.

반종원 (31 회 , 수원침례교회 담임)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삶이 가장 어려워질 때 어머니를 떠올리며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 목회의 씨앗이 되어준 모교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다며 학교 성장에 기도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최근의 시각은 주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모욕과 핍박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전의 설립자께서는 밀알정신의 헌신적 실천을 삶으로 보여줬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서인만의 DNA 가 있다. 동문 모두가 주의 삶을 세계에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활약해 주길 간구하였다.

2 부 친교의 시간에는 개인별로 근황 소개가 이어졌다. 내년도 총동문회 체육대회는 개교기념에 맞춰 진행하고 성대한 총동문회가 되도록 기수별로 힘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 날 모임에는 35 명이 참석했다.

대상 최서진 학우
'치카치카 양치놀이'
영보학과 교구경진대회 , 58 점 출품

▲ 최서진 (영보 2) 학우가 만든 대상수상작 ' 치카치카 양치놀이 '

영보학과 (학과장 강정원) 의 교구경진대회가 지난 24 일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진행되었다. 경진대회에는 2 학년 학우들이 제작한 58 점 (개인 48 점 , 팀 10 점) 이 출품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출품한 43 점과 비교해 약 30% 증가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최서진 학우의 ' 치카치카 양치놀이 ' 에 돌아갔고 단체 대상은 방수현 , 원유민 , 이한솔 학우의 '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요 ' 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박수민 학우의 ' 테트리스 블록놀이 ' 와 김기희 학우 등 5 인이 제작한 ' 골라골라 ' 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우수상 , 장려상 , 아차상등 13 개 작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교구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구상에서 최종 완성까지 최소 2~4 주간이 소요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이뤄져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최성진 외래교수가 학우들의 제작과정 전체를 코디넷하며 교육적 완성도를 끌어 올렸다. 심사에 참여한 안미희 (대학어린이집) 원장은 작품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교육목적 등이 매우 우수하였다고 평했다.

조영자 동문
1 만 달러 헌금
준비된 크리스찬 IT 전문가 되길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조영자 (12 회) 동문이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에 미화 1 만 달러 (1,100 여만 원) 을 후원하였다.

1967 년 학교 졸업 이후 미국으로 이민 후 정착하며 현재까지 과학계와 관련된 업무와 지역사회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그는 "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뜻이며 가르침 " 이라 말하고 " 모교의 설립정신과 복음전도자 양성의 굳건한 전통을 끝까지 이어 줄것 " 을 당부하였다.

조 동문은 지난해에도 1 만 달러를 후원하며 학교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주었다.

성서학과 신학인의 밤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 이성화 동문회장이 학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서학과가 주최하는 '2020 신학인의 밤'이 12일 저녁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와 2부 성서인의 나눔 및 만남으로 진행됐다.

이성화(28회, 서문교회 담임) 동문회장이 '전하고 싶은 말'(눅 10:38~42)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에겐 설립자가 보여준 우리만의 자랑스런 신앙의 유산이 존재하며 그것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다. 성서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실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서인은 '무엇이 되느냐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일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며 밀알정신 계승자의 자부심으로 사명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성서학과는 우리 대학의 평형수 같은 소중한 주체들이고, 성서학과 졸업생들은 한국교회의 평형수 같은 존재라고 믿는다. 위기의 한국 교회를 바로 이끌고 나가는 기호(旗號)가 되어 달라고 격려하였다.

2부 성서인의 만남은 대담형식으로 김은호 대학원장, 반세호 목사(지구촌교회 대학부팀장), 김재명 목사(월계성서교회)가 대담을 이어갔다.

성서학과의 유산과 전통은?, 다시 학생시절로 돌아간다면? 등의 질문이 있었다. 반세호 목사는 성서대의 특징을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라 강조하였다. 그는 성서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전도자가 되길 희망했다. 이날 진행 과정은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었고 한때 600여명이 시청하였다.

사복인의 밤 온라인으로

컨셉은 여행, '떳다 사방'

▲ 학우들이 로고스홀 무대에서 장기자랑을 펼치고 있다

'사복인의 밤' 행사가 도담학회(학회장 최하은, 사복 4) 주관으로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컨셉은 '떴다 사방'. 코로나 시대 지쳐가는 사복인에게 힐링이 되는 여행을 담았다. 1부 레크리에이션 선배와의 만남, 2부 장기자랑과 추첨순서로 진행됐다.

최선희 학과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만나는 게 부담이지만 온라인 형식도 의미가 있다. 선배들까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복인들의 힐링을 생각하고 멋진 비행 스케쥴을 준비해 준 임원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1부는 빙고게임, 동문과의 Q&A가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인재(65회) 동문이 재학중 경험담과 사복인의 자세 및 역할 등을 나누며 후배들과 토크 공유로 관심을 이어갔다. 장기자랑은 7개 팀이 로고스홀에서 뮤지컬, 노래 및 개그 등을 선보였다. 영광의 대상은 김진, 정균영(2) 학우 팀이 차지했다.

컴소인의 밤

준비된 크리스찬 IT 전문가 되길

▲ 행사를 다 마치고 교수들과 학우들이 함께 하였다.

컴소인이 함께 참여하는 '컴소인의 밤' 행사가 5일 하람학회(회장 정승원 3) 주관으로 미아동 더빅토리아 웨딩홀에서 진행되었다. 재학생과 전공교수 등 100명이 참석하여 선후배간 우의와 결속을 다졌는데 장기자랑과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해덕 학과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 환경에도 올해 학습을 잘 이어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코로나 시대가 IT 분야의 SW 개발을 요구하며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준비된 크리스천 IT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는 컴소인이 되어달라고 인사하였다.

4개 팀이 장기자랑 무대에 올라 흥과 끼를 더한 노래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열기가 오르자 객석 동료까지 합세해 합창과 응원구호로 컴소인 만의 잔치를 즐겼다. 4학년 선배들이 각 테이블에 자리하고 취업현장의 경험담과 학습의 꿀 팁으로 나눔을 이어갔다. 일부 동문들은 회사에서 외부 행사 자제령에 따라 참석을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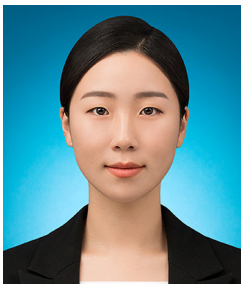
대학기본역량진단

2021 년도 4 월께로 예정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넘어야할 관문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고 일반 국민의 인정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선정되지 못하면 재정지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대학은 2018 년 제 2 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이 되었으며 매년 14 억씩 3 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3 주기 평가는 2021 년 3 월 –4 월경에 있을 예정이고 모든 대학이 이 평가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권역별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70 여개의 쟁쟁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해야 합니다. 가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해서 떠날 학우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에라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옵니다.』 (약 5:16)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학생충원율' 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라는 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점 100 점 중 학생충원율이 20 점입니다. 그래서 꼭 학교로 돌아 와야 합니다.

학우들이 기도로 도와주면 저는 이 싸움은 이긴다고 봅니다. 우리대학의 평가 준비를 돕고 있는 한 컨설턴트가 우리 대학의 강점은 3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평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정말 화목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살전 5:11) 연구위원, 실무위원들의 모습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유 있는 일정입니다. 모두가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속도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마감 시간 내에 작업을 완수 할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유연한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이 밤을 지새우며 일하면서도 사업단이 나아 가야할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전체를 끌고 나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이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5 개월 남았습니다. 기도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직원 컬럼
배민정 직원(입학관리팀)

여행 그것이 나의 즐거움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런 나에게 첫 해외여행은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3 년 전 나는 대학 졸업할 무렵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유럽행 왕복티켓을 덜컥 구매하고 말았다. 가족과 지인들이 말했다. 여자 혼자 유럽 여행은 자살행위와 같다. 지갑 털리고 인종차별로 얻어맞는가 하면 한국인에게 사기까지. 에코백은 내 가방을 가져 가라는 것과 같다는 말들이 떠돌아 다녔다. 그 무렵 나는 국내여행도 잘 다니지 않았으니 그럴만했다.

주위의 온갖 염려를 뒤로하고 나는 유럽행 비행기에 과감히 몸을 실었다. 그리고 한 달간 유럽 곳곳을 맨몸으로 훑고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되돌아왔다. 떠나기 전 떠돌던 우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오히려 에코백을 메고 커피, 다른 한손은 카메라도 들었다. 사진 부탁은 곧 핸드폰 분실이라 했지만 내 유럽사진의 1/3 은 그들이 찍어준 작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인이 내게 downtown 이나 기차역을 묻는 경우도 발생했다. 당시 남프랑스지역을 여행 중이었는데 왜 동양인인 나에게 길을? 그땐 궁금했다. 관광의 도시 Paris 에 도착하고 이유를 알았다. 경비가 빠듯했던 나는 최소의 옷가지만 챙겼다. 그러다보니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다운 심플 스타일. 딱 봐도 여행객은 No 인 셈이었다.

그때 이후로 내게 여행은 선물이 되어주었고 여행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다.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의 긴장과 묘한 설레임, 따뜻한 미소와 여유. 색다른 문화와 갖가지 풍광들, 귀국하며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까지.

요즘 코로나로 해외는커녕 국내마저 조심스럽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강화 소식이 들렸다. 왠지 답답하다.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잿빛일색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결에 휩쓸리며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내게 올 겨울은 더 춥고 긴긴 시간이 될 것만 같았다.

교수 컬럼
김승호 교수 (성서학과)

코로나19(Covid19) 상황과 한국교회

2019 년 12 월 8 일 중국 우한 (武漢) 시에서 폐렴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감염 확산속도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 (WHO) 는 1 월말 ' 국제적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 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 3 월 11 일경 110 여 국으로 확산되자 공식적으로 팬데믹 (Pandemic) 상황을 선포 ,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19 확산의 대유행인 상황에 처해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히 10:25).

둘째 ,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가 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예배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셋째 , 교회로서의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기근과 박해의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공동체는 가정이다 .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house church) 였다 (행 2, 5, 16, 18 장).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고백과 참회 , 성경읽기와 설교 , 감사와 찬양 , 봉헌과 결단 , 파송이 포함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넷째 , 교회는 국가의 시민으로 성숙한 책임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 행정기관 , 의료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 교회 공동체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킴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외래교수 컬럼
이소리 교수 (히브리어2)

surfin with my Christ

2020 년 시작부터 우리 삶을 강타한 바이러스가 성탄절 기대로 가득해야 할 거리 곳곳을 메웠습니다 .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현실 앞에서 내일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 크고 작은 삶의 고비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 흔히 삶의 고비를 '인생에 파도가 친다' 는 말로 비유합니다 . 이 말을 빗대면 지금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파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저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을 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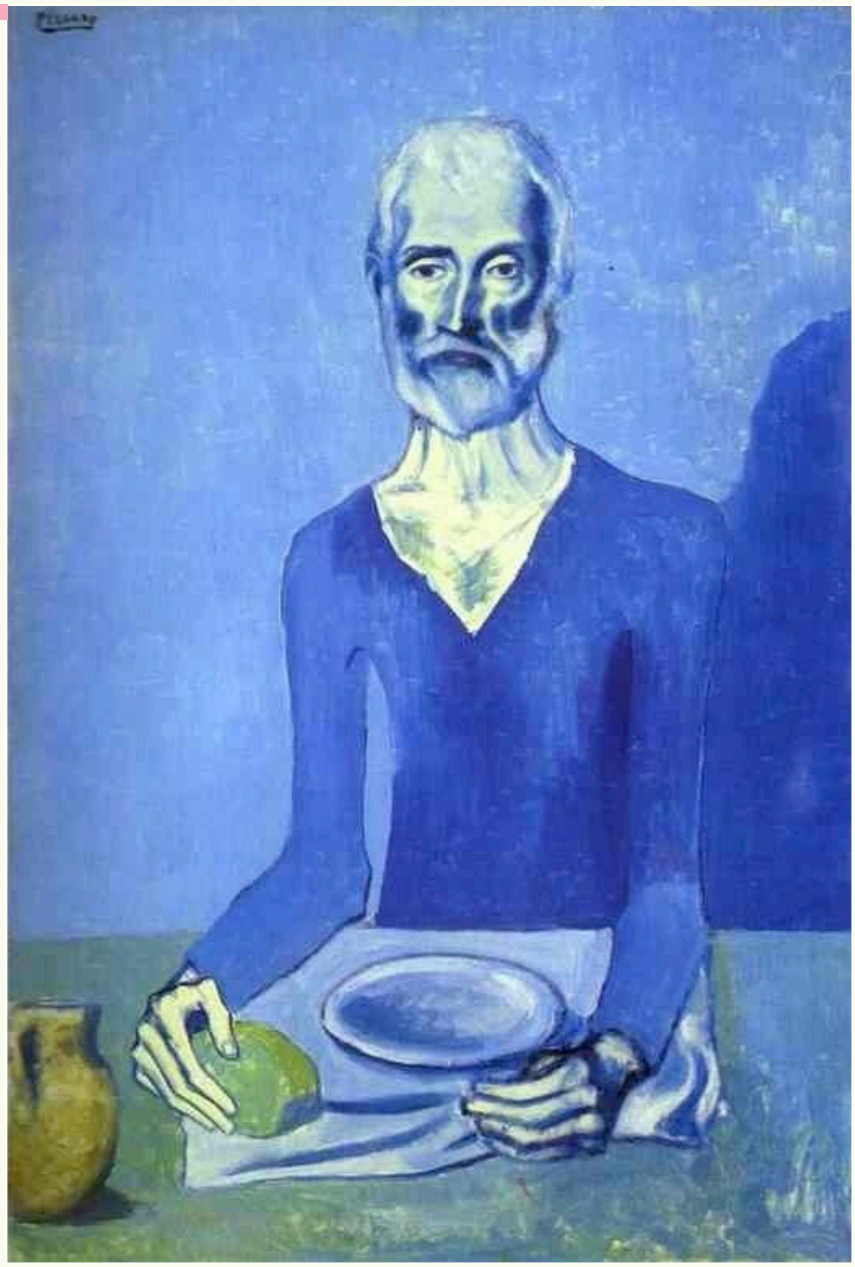
어떤 마음으로 이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surfin with my Christ' 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 즐겨 듣는 노래 가사의 한 소절입니다 . 서퍼들은 파도를 타기 위해 서핑보드라 불리는 부력 있는 판을 사용합니다 . 서핑보드는 서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 혹시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 그래서 서퍼들은 서핑 중에도 이 보드와 분리되지 않기 위해 발목에 리시라고 하는 끈을 연결하여 서핑보드를 사수한다고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가 필요합니다 . 성경은 줄곧 그리스도가 유약한 우리 마음에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반석 위에 나와 우리를 세울 때의 유익도 알려주었습니다 . 반석의 힘과 능력은 그 어떤 파도를 타기에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우리에게 지금의 파도를 잠재울 지식과 능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라 , 파도를 타고 파도가 끝나기까지 그 위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빌 4:13).

우리 모두 , 주어진 삶에서 'surfin with our Christ!'

최정권의 은유한 GALLERY _ 7호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The Ascetic(수도사) 1903

https://m.blog.naver.com/cuhouse1/221315348237

깊은 청색

그림도 운명을 가지고 그려집니다. 어딘가에 보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해석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림의 운명은 화가에게 있지 않고 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그림은 보이는 이와 하나가 되는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 필라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한남동 순천향 병원의 한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몸무게 27 킬로… 환자복이 어깨 위로 걸쳐지지 않는 깡마른 소년의 몸이 우울한 청색의 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소년이 수도사의 몸 안에 자신의 몸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피카소가 우울해 보이는 이 그림을 20대 초반에 그립니다. 91 세에 죽음을 맞기 전까지 수 만점을 남겼고 그의 그림을 분류하는 이들이 20 대 초반에 그린 그림들을 청색시대 (1901–1904 년) 라고 분류합니다. 친구의 자살로 선택한 그의 청색은 깊은 고독과 상처 그리고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의 길고 마른 손가락안의 마른 빵이 우유를 붓기 전에 텅 빈 그릇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손 안으로 접혀진 엄지손가락은 그가 느끼는 긴장감을 말해 줍니다. 움푹 패이고 수척한 가슴에 비해 유난히 굵어 보이는 목도 불안정한 그의 삶을 말해 줍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식사가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다. 수도사의 눈도 빵이 아닌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두 눈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이 이 그림처럼 우울하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닌 밝은 햇살에 비쳐진 맑은 하늘의 청색을 그려 봅니다.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4,544,000원)

권일화(동문)	3,000,000	한길교회(일반)	30,000
최병규(일반)	1,200,000	엄보영 (동문)	14,000
신영옥(재학생가족)	3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9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5,400,000원)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일 반
10구좌 김동관 신치선 이광국	1구좌 김순덕 김화석 박은경	10구좌 오진숙 장기영	2구좌 진양희
3구좌 고은영 이영섭	박필종 엄미자 조현석		

합계 334,715,599원 (일반후원 + 약정후원) (2020. 2. 21~2020. 11.30)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 (67% 달성)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나훈아와 송태근의 고향역

어릴 적 아버지는 '번지 없는 주막'을 잘 부르셨습니다. 고교 밴드부장을 한 아버지의 음악성이 제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표현할 목소리나 음정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찬식에 참석한 술꾼이 목으로는 받았지만 배에는 받지 않은 포도주잔 같은 겁니다. '모차르트'를 부러워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자신은 열망만 주고 재능은 모차르트에게 줬다고 원망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양은으로 만든 상위에서 젓가락 두드리며 부른 아버지의 구성진 노래,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이란 가사에 실려 제 마음의 가락이 됐지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를 소위 자신이 잘 부른다는 18번 하나라도 지니며 살고 싶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열망이 클수록 재능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졌습니다. 추석연휴에 한다는 나훈아 쇼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고 부흥회 날이 기다려지듯, 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다린 곡은 '고향역'이었습니다. 무대에 기차가 나오고 웅장한 합창단의 백 뮤직과 함께 고향역이 시작되는데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저곡은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저 곡은 혼자 불렀어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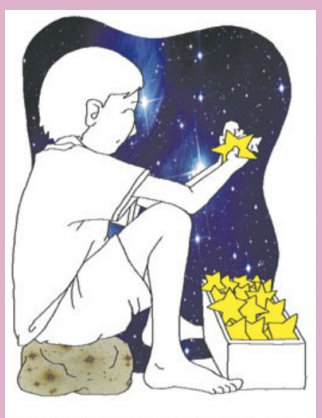
비가 죽죽 내리는 오후, 카톡에 반주 없이 생음악곡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서 불러봤다"며…. 송태근은 설교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토록 구성지게 한국 사람의 감정을 살려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남의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이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겨울 옷 위로 가려운 곳을 긁는 것 같은 느낌처럼, 좋은데 뭔가 아쉬운 감정…. 외국가사에서 느낄 수 없고 오직 우리 가사에서만 가슴을 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역 다정히 손잡고 고개 마루 넘어 갈 때에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친구 목소리가 어머니 단어 위에서 잠시 숨을 내려놓고, 얼싸 안았다는 말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 진동이 전파되어 마음에 묻어둔 어머니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설교자는 '뽕필'이 필요한 노래도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웨일즈 출신 '로이드존스'는 회심이 설교자의 기질의 변화 혹은 승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질을 바꿔야 할 의무감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고향역'은 나훈아보다 송태근이가 더 잘 불렀습니다. 최소한 제게는….

구두 닦는 소년 _ 정호승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구두통에 새벽별 가득 따 담고
별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 주기 위해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하루 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들 발 아래 짓밟혀 나뒹구는
지난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하늘 숨은 낮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모아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사람들 목숨 닦는다
목숨 위에 내려앉은 먼지 닦는다
저녁별 가득 든 구두통 매고
겨울밤 골목길 걸어서 가면
사람들은 하나씩 별을 안고 돌아가고
발자국에 고이는 발바람 소리 따라
가랑잎 같은 손만 굴러서 간다.



https://trustymk.blog.me/220688195633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7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 소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년이 나누어주는 별을 품으며 발아래 짓밟혔던 꿈도 하늘에 숨어 있던 빛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보이지 않는다. 구두를 닦으며 새벽별 가득 구두통에 담아주던 소년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렵사리 고개 들던 꿈은 다시 먼지를 먹고 길바닥에 나뒹굴며 빛을 잃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두를 신지 않았다. 구두가 없어도 신을 것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휘황찬란한 시대 속에서 소년도 잊고 구두통도 잊고 새벽별도 잊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년을 구두통을 새벽별을 잃은 줄을 몰랐다.

2021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전기모집(2차)

▷ 모집과정

일반대학원 _ 간호학과 석사과정(M.SN)
간호학 전공(간호사자격증 소지자)

신학대학원 _ 석사과정(M.Div)
목회학 전공

보육대학원 _ 석사과정(M.CE)
보육학, 특수보육학 전공

▷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① 원서접수 : **2021.1.4(월) ~ 6(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jes4674@bible.ac.kr**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대학원 교학처(복음관3층)
③ 면 접 : **2021.1.8(금)**

▷ 위 치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 입학문의

대학원 교학처 **02-950-5464, 5456**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KOREAN BIBLE UNIVERSITY GRADUATE SCHOOLS

대학 어린이집

▲ 영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추수감사예배중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 7 일 대학어린이집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온 과일과 채소를 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년 목사님을 모시고 영유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왔지만 올해는 달랐다. 각 반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예배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19 로 분주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그동안 지켜주고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각 반에서 모은 과일과 채소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보내 어려운 이웃과 결실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밀알반 박미애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랜선노래방에 참가한 출연자가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랜선 노래자랑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11 월 행사로 복지관 3 층 강당에서 랜선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19 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지역민에게 다수가 좋아하는 노래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노래자랑의 전 과정은 집단감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출연자들이 강당에 모여 개인별 노래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 지역민과 지인 등이 조회 수, 댓글 수, 좋아요 횟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출연자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고 자신이 선택한 애창곡을 멋진 모습으로 불렀다. 유튜브 영상에 지인과 가족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지면서 모두를 즐겁게 해 준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앞으로도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복지관이 될 것이다.

[복지서비스 1 팀 임푸름 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 유아들이 북서울꿈의숲에서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다.

가을 나들이

지난 12 일 꿈빛어린이집은 만 3~5 세 61 명의 유아들과 북서울꿈의숲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실내를 벗어나 넓은 들판에 스카프를 이용한 가을바람 느껴보기와 새처럼 하늘을 나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캐치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왔니, 풍선놀이' 등의 신체놀이에 관심이 높았고 형님과 동생이 함께 자연의 품속에서 마음껏 노니는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을임을 알려주는 억새를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도 경험하였고 낙엽 밟을 때 나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정감어린 모습도 보여줬다.

가을이 무르익는 풍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껴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백합반 김태연 교사]

성서 대학교회

▲ 기숙사에서 공부중인 학우들에게 배달된 치킨과 피자셋트

감사 예배

성서대학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1 월 첫 주간에 일상회복에 대한 감사 예배를 대면으로 드렸다. 코로나 19 로 비대면이 길어져 대면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다. 이날 예배는 그동안 매주 교회에서 주님과 호흡해 온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준 말씀이었다. 성도들은 힘든 상황에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또한 집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중인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 36 세트를 건네며 학우들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전했다. 성서대학교회가 대학교와 학생을 잘 섬기며 주님께 쓰임 받는 은혜의 근원지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 지난해 졸업한 유아들이 홈커밍데이에 참여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홈커밍 데이

지난 19 일 상계백병원어린집은 2019 수료생을 위한 '홈커밍 데이'를 실시하였다. 수료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한 행사였고 1 부 체육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체육시간, 2 부는 알록달록 곰돌이 비누 만들기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대외 활동이 줄어 아쉬웠지만 부모님과 함께 운동과 게임으로 땀을 흘렸다. 시간이 점차 흐르자 1 년 전 푸른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가 즐겁고 활기차게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코로나 19 로 원장님, 선생님들과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 아쉬웠는데 좋았다. 매년 졸업하는 수료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어린이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맑은반 고하은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 유아들이 금연방지를 위해 모형으로 만든 폐를 살펴보고 있다.

금연놀이터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1 월 '건강을 지키는 금연놀이터 (이하 금연놀이터)' 전시를 진행하였다. 금연 놀이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흡연 예방용 체험형 놀이 전시물로 건강과 담배의 폐해 및 위험성을 알려준다. '점프점프 ! 튼튼한 폐를 만들어요', '건강한 우리가족, 파이팅', '건강 미로 탈출 !'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유아들은 금연특공대로 주변사람들에게 금연 권유 편지 작성과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 등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금연센터는 12 월 '하얀 겨울'을 주제로 체험행사를 기획 중인데 유아들의 풍부한 놀이 환경과 자극을 위해 다양한 체험전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육전문요원 김슬아]**

상계5동 어린이집

▲ 유아들이 멋쟁이 공룡놀이에서 참여해 체험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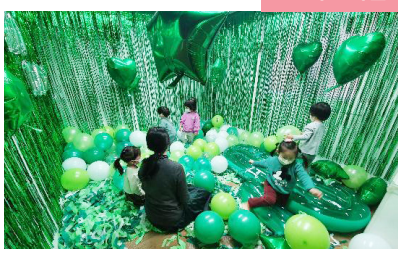
친구들아 놀자

지난 12 일, 상계 5 동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아 놀자' 행사가 이루어졌다. 매년 학부모 참여로 코너별 체험활동을 가져왔는데 코로나로 원아만 참여했다. 행사는 코너별 퍼포먼스 놀이 체험이며 멋쟁이 공룡, 인형극, 에어바운스, 숲 속 친구들, 꽃보다 아름다워가 있었다. 멋쟁이 공룡이 인기였는데 공룡 복장으로 화석을 캐고, 정글에 숨어있는 곤충과 동물 피규어를 찾아보는 체험이었다. 에어바운스에서 신체활동과 '목욕탕 괴물' 인형극을 관람하고 꽃밭에서 자유로운 신체놀이와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활동도 했다.

실외활동이 적은 영유아들이 이번 행사로 놀이를 경험하며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위해 다양한 놀이를 제공할 것이다.

[예쁜꽃잎반 조은경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 영유아들이 그린컬러로 단장된 공간에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그린데이 (Green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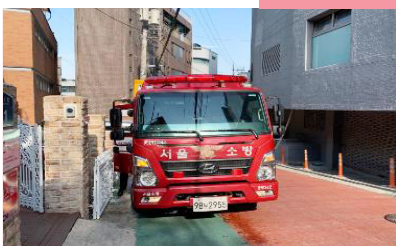
지난 17~19 일까지 그린데이 (Green Day) 가 개최되었다. 그린데이 (Green Day) 란 색상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 색깔 퍼포먼스 행사이며 코로나 19 에 따라 연령대별로 하루씩 경험하였다.

영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서 풍선과 튜브를 통해 입장했다. 비슷한 색상이 단장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놀이 등으로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체험하였다. 놀이가 주는 흥미로움과 색의 아름다움이 결합된 이색 경험이었고 덕분에 관심과 집중도도 높았다.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연령별로 하루씩 진행돼 훨씬 여유로웠다. 내년에도 더 다양한 색상으로 경험의 폭을 넓히도록 행사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행복한반 윤영숙 교사]

충무 어린이집



▲ 영유아들의 소방대피훈련을 위해 파견 나온 소방차

소방대피훈련

지난 5 일 충무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중부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영유아들이 교사의 지시에 신속히 대피장소로 이동하였고 낮은 자세에서 입과 코를 막는 등 화재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훈련을 다 마친 후 소방차를 탐색하면서 소방관 아저씨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영유아들은 소방차의 규모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불은 언제 끄러 가는지 ?" 등으로 관심을 보였다. 소방관들은 신속한 대피 모습을 보니 평소 훈련을 잘 해왔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도 적극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번 소방훈련을 통해 어린이집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교직원 및 유아들이 신속히 대처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시간이 되었다.

[백예나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195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강우정.강진(총장)	958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권일화(동문)	3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춘자 김명희 김보희 김순덕 김현진 김화석 남상숙 류수진 맹현진 박수진 박윤복 박은경 박창대 박형택 백연주 이상용 이상필 이영광 이창호 이혜선 전한나 정영용 조현석 한혜우
2구좌 국소영 김영태 이영애
3구좌 윤문순 이안나 이영섭 조은경 최광희
5구좌 안선례 조유진
10구좌 서수경 신치선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엄미자
5구좌 정미영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곽한나 박주양 서광철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조아라
2구좌 권민주 장길정
3구좌 임경미
7구좌 김덕현
10구좌 문무열 오은주 조혜경
15구좌 김은호

성서선교회
10구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구좌 정유광
2구좌 반요셉

퇴계원제일교회
10구좌 퇴계원제일교회

풍암교회
1구좌 유금례

효성교회
1구좌 진경숙

일 반
1구좌 권창석 김진영 안애숙 유화실 이민우
2구좌 김하람
30구좌 박순정

단체 및 기관
3구좌 섬기는교회
10구좌 만나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김시내 정다운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은해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아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준우 김지선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 융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유지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솔이 윤예서 윤정숙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호 이정훈 이지성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희영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화 조차현 조태환 조하영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현정 채유신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성광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경수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문홍 박재송 백연옥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소연 이승환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임지현 장재경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용희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황인숙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세련 김종숙 김지수 김현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기부자 명단

성인선 신연정 양연선 양혜영
오유경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우진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예솔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예린
최흥식 탁현정 태지선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홍혜주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연진
김종남 김준오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안선례 양현석 유양숙 장효정
조연정 천유림 최송희 최종건
허성희 홍현숙
벧엘성서동우회

6만원 권민선 정동주

8만원 임연식

10만원 김동숙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양연주 이부호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21만원 채종원

100만원 김인화 이례장학

300만원 권일화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심희정 안양희 윤효심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전계화 전명자 정창금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재숙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이마리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31만원 신영옥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구자람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영직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윤혜진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민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장혜지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진주 조철남 조형섭
허윤민 홍성진 황찬범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정지용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은실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전영호 추연진

4만원 김덕원 민찬양 임경미

4만5천원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5만원 권순범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김은영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정희 이호섭 장정순
최사랑 한재희

5만6천원 강영숙

6만원 김덕현 이성아

7만원 임환석

9만원 박인혁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복남
이소정 이은광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상열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1만2천원 강승태 강일석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곽규상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35만원 이강동

56만원 강일아

95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허성보

2만원 장윤정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박천순 변송이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효빈
탁지혜 한송이 호한나

4만원 박미선

5만원 박연희 서영숙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강진아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차 건

2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곽성국.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9천원 강태호 이상록 이 천 장인순
정희선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김겸일 김덕현
김동준 김민선 김병철 김사천
김상은 김승환 김신덕 김인영
김정숙 김지영 김지윤 김진철
김현광 김혜련 김혜진 김희현
남지영 류 강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이숙 박주형 박태수
백순옥 서 훈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종철 용정자 이길우
이노선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은영 이정자 임성일 장근문
장홍림 전옥순 정갑순 정나영
정도유 정승연 조건희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은희
최인숙 한성실 이에스더

2만7천원 김영헌 김은미 유상호 정무실
최우림

3만6천원 강규성 김배열 김성진 김인자
김일선 박성환 박온유 방미경
백승우 오은주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이관영 이정숙 장진희
전광심 정명수 조성민 허진순
황서린

4만5천원 권경만 김미선 박온오 유형창
이주현

5만4천원 김동수 김문응 김원태 김윤선
김현석 송인희 송재철 이숙영
이종옥 최대만

7만2천원 이윤봉

8만1천원 최강희

9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김온순 남윤주 박세건 이봉호
이은실 전명진 정선희 조혜경
최정권 한진호

9만9천원 서윤희 이정임

10만8천원 무 명

16만2천원 최선희

18만원 김웅기 최순남

21만6천원 김미진

1195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 김옥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일동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 장로회

10만원 김용철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다빛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희권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문광철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진성용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김종무 서미혜 석지현
오계순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마음교회/맘키즈푸드/목양교
회/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동신자
원/바르고복된교회/성복중앙
교회/아인안경원/열방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꿈꾸는교회
/새샘교회/어린양교회/우리교
회/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상
일교회/예일에드컬/천성교회/
평안교회(송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도
봉성실교회/두암산업(주)/만나
교회/상록교회/생명샘교회(성
주)/소망교회/오감발달연구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13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제트전기

30만원 서부중앙교회/염창중앙 교회/
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소계(202001021~202001120)
59,959,668

누계(20200301~202001120)
671,634,406